



##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보강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6.4.3.(금) 중앙일보는 「이 고환율에 예산처 환율 기준은 1,380원 … 외화사업 수천억 핑크 우려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 전 3개월 평균 환율인 1,380원으로 2026년 환율을 설정하는 것은 연중 환율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”며,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, 자금 부족으로 정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기획예산처 입장>

- 기획예산처는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최근 시점의 환율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,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(8월)에 직전 3개월 평균 환율을 산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기준환율을 결정합니다.
- 그 결과 2026년 예산편성 기준 환율인 1,380원은 지난해인 2025년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의 평균 환율로 결정된 것입니다.

□ 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과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❶이·전용, ❷예비비, ❸외화예산 환전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으며, 특히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불확실한 외환시장에 대비하여 외화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도 보강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유현 (janes0425@korea.kr)

